



ISSUE PAPER



『 일본 애니메이션의 신조류(潮流) 』

○ 작성 취지

- 2000년대 중순을 정점으로 애니메이션 TV시리즈 제작편수와 DVD 판매가 감소
 - 그러나 일본에서 아직은 불황인 애니메이션 업계가 사실은 그 잠재력이 높고 엔터테인먼트업계를 새롭게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음
 - 최근 작품 면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타입의 애니메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했고, 관련 음악의 경우 대규모 라이브 개최 등 아티스트가 증가 추세에 있어, 이러한 새로운 애니메이션 조류를 분석하여 최근의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를 이해하고자 함
- ※출처 : 「월간 닛케이엔터테인먼트 6월호」 (Nikkei BP사 발행) 및 관련 사이트 등

○ 작성 순서

1. 「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 현황」
2. 「애니메이션 관련 음악 현황」
3. 「시사점」

1. 『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 현황』


□ 「극장 공개(예정) 애니메이션 동향」

○ 「극장 공개(예정) 주요 특징」

- 애니메이션 붐이라고 불리었던 '05년도는 TV방송 타이틀수가 연간 250편을 넘었지만, '09년도는 200편 정도로 감소하는 등 시장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
- 한편으로 어느 프로듀서는 '제작편수가 적정수준이 되어 확실히 현장은 힘들지만 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려는 자세를 업계 전체에서 느끼고 있다'고도 함
- 이를 입증하듯 수준 높은 팬의 눈높이에 맞추는 작품제작을 위해 실제로 새로운 타입의 작품이 발표되고 있는 추세임
- 하나의 사례로,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최근 호응이 높은 방식으로, 문예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제작인데,
 - √ 올 가을 3부작으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 'MarDock Scramble'으로, 원작자는 "10년 책방대상(4/20)의 대상 수상자 '우부카타 토우'(작품 : 천지명찰(天地明察))
 - √ 그 외에도 나오키상 작가인 '모리 에토'의 롱 셀러 'Colorful'이 07년 상영되어 인기를 모았던 '갓과 쿠와 여름방학'의 하라 케이이치 감독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감독을 맡음
- 원작의 팬은 폭넓기 때문에 애니메이션화된 작품은 평소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숙해지기 쉬우며, 올 여름에 공개되는 작품은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애니메이션 팬 이외에도 주목을 받는 작품이 많음

○ 「극장 공개('10년 예정) 주요애니메이션 일괄」

| 공개일 | 작품명 | 특징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/ 1 | 가시나무 왕 -King of Thorn- | - 만화 원작의 SF 액션 애니메이션 / 제작 : 썬라이즈 - www.kingofthorn.net / HP에서 본편 12분 영상 공개 |
| 5/ 1 | 극장판 '문학소녀' | - 청소년 소설 원작의 하이틴 애니메이션 / 제작 : Production I.G. - www.bungakushoujo.jp / HP에서 단편 DVD 프로모션 영상 공개 |
| 5/29 | 극장판 브레이크 블레이드 제1장 각성의 시각 | - 만화 원작의 로봇 판타지 애니메이션 - 제작 : Production I.G. / XEBEC - http://breakblade.jp / HP에서 오프닝영상 등 프로모션 영상 공개 |
| 6/26 | 우주쇼에 어서 오십시오 | - 개인 원작의 SF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/ 제작 : A-1 Pictures - www.uchushow.net / 화제의 영국 가수 '수잔 보일' 이 주제가 |
| 7/10 | 극장판 포켓몬스터 다이아몬드&펄 환영의 패자Z | - 인기 게임 원작 SF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/ 배급 : 도호 - www.pokemon-movie.jp / 13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|
| 7/10 | Toy Story 3 | - 디즈니 배급의 인기 CG애니메이션 / 제작 : PIXAR - www.disney.co.jp/toystory/ / 3D 애니메이션 공개 |
| 7/17 | 더부살이 아리에티 | - 영국 작가 'Mary Norton'의 판타지소설 'The Borrowers'이 원작 - 제작 : 지브리 스튜디오 / 배급 : 도호 / www.karigurashi.jp - 지브리 소속 '요네바야시 히로마사' 감독 데뷔작 |
| 7/31 | 곤충이야기 꿀벌 하치 ~용기의 멜로디~ | - 다츠노코 프로덕션 오리지널 TV애니메이션이 원작 - 제작 : 다츠노코 프로덕션/Group TAC - www.hutch-movie.jp / 한국에서도 과거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작품 |
| 8/ 7 | 드래곤 길들이기 (How to train your dragon) | - 파라마운트 배급의 CG애니메이션 / 제작 : 드림웍스 - www.hic-dragon.jp / 3D 애니메이션 공개 |
| 8/21 | Colorful | - 소설 원작 청소년 판타지 애니메이션 / 제작 : 썬라이즈 - http://colorful-movie.jp / '하라 케이이치' 감독 최신작 |
| 8/28 | Loups=Garous | - 소설 원작 근미래 SF 애니메이션 / 제작 : Production I.G./Trance Arts - http://lg-anime.com / HP에서 프로모션 영상 공개 |
| 9월 |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00 ~Awakening of the Trailblazer~ | -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 오리지널 원작 SF 로봇애니메이션 - 제작 : 썬라이즈 / www.gundam00.net |
| 가을 | MarDock Scramble 제1부 '압축'(★) | - 소설 원작의 SF 미스터리 애니메이션 / 제작 : GoHands - http://m-scramble.jp / 원작 소설이 전국 서점 직원 투표의 '책방 대상' 수상 |

 : 일본 제작 애니메이션

□ 「최근 주목 신작 애니메이션」

○ 「주목 신작① : 더부살이 아리에티」

- <작품 개요>

- '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', '벼랑위의 포뇨' 등 발표마다 히트작을 배출하고 있는 **지브리 스튜디오**의 최신작 '더부살이 아리에티'가 **7월 17일** 일본 전역 공개 예정
- 이 작품은 지브리 스튜디오를 이끄는 '미야자키 하야오' 감독이 **각본**, 이번 작품이 첫 작품인 동 스튜디오 소속 애니메이터 출신 '요네바야시 히로마사' 담당
- 영국 인기 작가 'Mary Norton'의 아동소설 'The Borrowers'가 원작

- <주요 줄거리>

- 애니메이션은 작품배경을 '50년대 영국에서 2010년 동경으로 각색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며, 주인공은 14세 소녀 아리에티로 키가 10센티의 난장이
- 주인공 3인 일가가 사는 곳은 낡은 집의 부엌 밑으로 마법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그들을 위한 매점이 있는 것도 아님
- 그 때문에 마루 위 인간들 집에서 성냥 통이나 빨래집게 등을 빌려 씬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
- 즉, 난장이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발견되면 무섭지만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임
- 그러한 어느 날 아리에티는 지병을 앓고 있는 소년 쇼에게 발견되면서 소년과 아리에티의 교류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림
- 현 단계에서는 스토리나 캐릭터의 상세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, 스즈키 토시오 프로듀서는 '아리에티는 밝지만, 쇼는 그렇지 않은 대조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다'라며, 이야기는 아리에티와 쇼의 만남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함

- <작품 특징>

- 남자아이와 별세계의 여자아이의 교류를 그린 작품으로, 지브리 전작 '벼랑위의 포뇨'와 같은 구조
-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'벼랑위의 포뇨'와는 대조적으로 "더부살이"를 찾는 아버지와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, 그리고 호기심 왕성한 아리에티의 고전적인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모습은 어른들에게도 어딘가 그리움을 자아내고 있음

- <배경 음악>

-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 '주제가'인데, 이번 작품의 주제가 및 배경음악은 지브리 작품에 다수 참가했던 '히사이시 죠'가 아닌 프랑스 출신의 가수 겸 하프 연주자인 '세실 콜베르'가 담당

※참고 : '벼랑위의 포뇨'는 주제가 앨범이 50만장을 넘는 히트 기록

- <감독 소개>

- 이번 작품으로 감독 데뷔를 하는 '요네바야시 히로마사'는 가나자와 미술공예 대학 졸업 이후 '96년 지브리 입사
- '원령공주', '하울의 움직이는 성', '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' 등에서 동화를 담당했고, 미야자키 감독의 아들인 미야자키 고로씨가 감독 데뷔한 '게도 전기'에서는 작화 감독 보를 맡았었음

< 더부살이 '아리에티' >

| 애니메이션 '더부살이 아리에티' (借りぐらしのアリエッティ) | 애니메이션 사운드트랙 앨범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주제가 싱글 | 이미지 앨범 |
|  |  |  |

○ 「주목 신작② : MarDock Scramble」

- <작품 개요>

- 극장판 애니메이션 'MarDock Scramble'의 원작자 '우부카타 토우(冲方丁)'는 최근 '천지명찰(天地明察)'이라는 작품으로 금년 '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'에 이어 일본 전국 서점직원들이 투표하여 선정하는 '책방대상'을 수상하는 등 인기 라이트 노벨 작가
- 이번 작품원작도 '03년 '일본 SF대상'을 수상한 소설로, 그 이후 사이보그화된 소녀들이 범죄에 맞서 싸우는 '슈피겔' 시리즈 등 다수의 라이트 노벨을 집필

- <작품 특징>

- 'MarDock Scramble'은 가까운 미래 가공도시를 무대로 위험에 빠진 여주인공의 모험과 성장을 그린 이야기로, 성과 폭력묘사, 압도적인 작품 볼륨 등 영상화의 장벽이 많아 애니메이션화가 중도에 좌절된 적도 있음
- 이번 작품은 '03년도부터 킹레코드사가 제작위원회 창구를 맡고 있는데, 당초 원작자는 애니메이션화를 거절했었으나, 킹레코드사의 나카니시 프로듀서와의 오랜 신뢰관계로 킹레코드사의 스타차일드 레이블을 통해 제작 허락을 받아 진행 중에 있음

- <작품 제작>

- 이번 작품에서는 '우부카타'씨가 원작 제공뿐만 아니라 각본 집필도 맡았음
- 애니메이션 제작을 맡은 **GoHands**는 '08년 오사카를 거점으로 설립된 신생 제작사이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 **Satelight**사의 오사카 스튜디오가 독립하여 설립한 회사임

< MarDock Scramble >



○ 「신작을 통해 본 주요 특징」

- 최근 '우부카타 토우'씨 작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원작으로서 인기연재 만화가 아닌 10대~20대들이 선호하는 '라이트 노벨'이 애니메이션의 원작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음
- 그 중에서도 특히 전국 서점 직원들이 투표하여 선정하는 '책방대상(本屋大賞)'은 '전국서점 직원이 뽑은 1번!, 팔고 싶은 책'을 캐치프레이즈로 '04년도에 창설한 새로운 타입의 문학상'
 - 미디어믹스 작품의 원작을 찾을 수 있다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, 매년 10개 작품이 노미네이트되어 4월에 대상이 발표됨
 - 노미네이트된 작품은 다수의 서점 코너에 진열되어 기존의 문학상보다 폭넓은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신의 엔터테인먼트 작품이 선발되는 경향이 강함
 - 지금까지 대상 수상작품뿐만 아니라 노미네이트된 작품의 다수가 영화, 드라마, 만화, 연극 등으로 제작되는 등 미디어믹스 전개도 활발하게 전개

2. 『애니메이션 관련 음악 현황』

□ 「애니메이션송 동향 분석」

○ 「최신 애니메이션송 동향」

- <주요 가수활동>

- 작년, 성우이면서 애니메이션 송을 부르는 **미즈키 나나**의 앨범이 성우로는 처음으로 오리콘차트 1위를 기록했으며, 작년 연말에는 'NHK 홍백가합전'에도 출전하는 등 큰 화제를 불러 모았음
- 그녀와 같이 애니메이션관련 노래를 중심으로 부르는 여성 아티스트의 활약이 눈부신 가운데, 미즈키를 비롯하여 **타무라 유카리, KOTOKO, May'n** 등이 일본 무도관에서 라이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있음

- <애니메이션 음악이벤트>

- 최근 아티스트의 솔로 라이브 이외에 애니메이션 음악 이벤트도 성황인데, 작년 애니메이션 음악전문 레이블 '**Lantis**'가 주최한 야외 라이브 '란티스 축제'는 **3일간 7만명** 이상 동원
-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일본 최대급 이벤트 'Animelo Summer Live'는 해마다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, 올해는 작년에 이어 **사이타마 슈퍼 아리나**(수용 인원 5,000명(최소)~37,000명(최대))에서 2일간(8/28~8/29) 개최 예정
 - ※'Animelo Summer Live'의 종합 프로듀서인 드완고의 세타 쿠로도氏는 애니메이션 음악에 대하여 'NHK가 신세기 애니송 SP'라는 특집방송을 계속 방영하는 등 미디어에서 취급하는 일도 늘고 있어 정보를 얻기 쉬워졌기 때문에 향후 일반인에게 더 알려질 것이다'고 함
 - ※실제로 'Animelo Summer Live'는 **2년 연속 5만명(2일간)**을 동원하는 등 인기 면에서 최근 수년간 진척이 없는 여름철 '락 페스티벌'을 넘어설 기세임

- <성황의 비결>

- 애니메이션관련 음악의 성황은 팬 의식이 변한 것도 큰 요인으로, Lantis의 사쿠라이 프로듀서는 '이전 애니메이션에서 성우는 어디까지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뒤로 가려져 있어 실제 인물을 보인다는 생각이 없었고, 10년 전 음악이벤트에서도 그냥 서서 바라보고 있는 관객이 적지 않았다'고 지적
- 이랬던 것이 시대를 거쳐 변하기 시작 '지금의 **10대~20대**는 태어날 때부터 (어린이용이 아닌 문화로서)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익숙해져 왔으며,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송도 유연하게 수용하고 있다'고 함

- 이 세대의 팬들에게는 애니메이션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, 라이브에서 **라이트 기구를 흔들거나 곡에 맞춰 일제히 점프하는 등 팬 스스로가 즐기는 방법**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도 2000년 이전까지의 소위 '오타쿠'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름
- 전자상가거리였던 '아키하바라'가 **애니메이션 문화의 거리**로서 지금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인기 관광지가 된 것처럼, **애니메이션관련 음악도** 이제 Sub Culture가 아닌 **Main Culture**가 되고 있음

- <애니메이션음악 아티스트>

- 이러한 변화는 **아티스트에게도 변화를 초래**하고 있는데, 전술했던 것처럼 이제까지의 애니메이션 음악 장면은 **아이돌적인 지지를 얻은 솔로 여성아티스트**가 견인하고 있었지만, 최근에는 **음악성과 스타일이 다채로워지고** 있음
- 예를 들면, 작년 TV애니메이션 '**NEEDLESS**'의 오프닝 곡을 부른 GRANRODEO는 보컬의 KISHOW(성우 '타니야마 키쇼')와 기타리스트 e-ZUKA에 의한 **남성 2인조 Rock Unit**
- √남성다운 존재감과 격렬한 스테이지는 정평이 나 있으며, 최근 1년 사이에 애니메이션 팬뿐만 아니라 남성 락 팬들에게도 지지를 받기 시작했음
- √작년 비주얼 계 밴드의 페스티벌 '**V-ROCK FES**'에 출연하여, 활동의 장을 넓히며 올해 5월 3일에는 일본무도관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음

○ 「**애니메이션 음악 아티스트 주요 공연일覧('10년, 무도관)**」

| 공연일 | 아티스트명 | 내 용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0. 5. 30 | 치하라 미노리 | -여성 성우 겸 가수(8개 싱글과 3개 앨범 발표) -2006년 '제11회 애니메이션 고베'에서 주제가상 수상 |
| 2010. 5. 3 | GRANRODEO | -남성 2인조 유닛(13개 싱글과 3개 앨범 발표) -남성 성우출신으로 일본무도관 공연은 처음 |
| 2010. 1. 24 | May'n | -여성 가수(10개 싱글, 4개 디지털싱글, 1개 앨범 발표) -호리프로 소속으로 일본무도관 공연은 티켓 당일매진 기록 |
| 2010. 1. 23 | KOTOKO | -여성 싱어송 라이터(15개 싱글과 5개 앨범 발표) -2007년 해외 첫 라이브 개최(대만 LUXY) |

| KOTOKO (www.kotoko.asia) | May'n (http://pc.mayn.jp) | 치하라 미노리 (www.chiharaminori.jp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|  |

○ 「최신 애니메이션송 동향(앨범)」

- <여성 3인조 Kalafina>

- 아름다운 하모니가 매력적인 여성 3인조 Kalafina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공의 경계(空の境界)의 주제곡을, 기존의 성우를 기용하지 않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멤버로 구성하여 소니 뮤직을 통해 데뷔
- 애니메이션을 넘는 주목도로 앨범 'Red Moon'은 오리콘 차트 5위 기록

- <flipSide>

- 애니메이션 '어느 과학의 초전자포(とある科學の超電子砲)' 오프닝 곡으로 오리콘 차트 3위 기록
- 성우로 여성보컬의 '난쵸 요시노'와 사운드프로듀서 '야기누마 사토시'의 유닛으로, 트랜스를 기반으로 한 사운드와 신나는 멜로디가 폭넓은 인기

- <여성 4인조 Sphere>

- 지금까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었던 존재로서 화제를 모은 것이 여성 4인조 그룹
- 고토부키 미나코, 타카가키 아야히, 토마츠 하루카, 토요사키 아키 등 인기 성우가 모인 평균연령 22세의 보컬그룹으로, 각각 '케이온!', '기동전사 건담00' 등 인기 애니메이션에서 활약하는 실력과 집단

※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작품마다 출연 성우가 유닛을 결성하는 예는 많이 있었지만, 동일 사무소의 멤버로 결성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그다지 예가 없었음

- 아이돌 성과 아티스트 성을 겸비한 퍼포먼스로 인기를 넓히며, 도쿄국제포럼 (5,000석 매진)을 포함한 전국투어 등 지금 가장 왕성한 활동 전개 성우음악유닛

| Kalafina www.sonymusic.co.jp/Music/Info/kalafina/index.html | Sphere www.planet-sphere.jp | flipside http://fripside.net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|  |

- <향후 전망 및 비전>

- 맹목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신세대 팬이나 새로운 음악성과 텔런트성을 가진 새로운 타입의 성우 아티스트의 등장에 의해, 세력을 넓히는 애니메이션 음악은 최근 2월부터 신주쿠의 타워레코드에서 애니메이션 음악CD를 100장 들을 수 있는 시청기계를 설치하여 호평을 받고 있음
- 이렇듯 음악분야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는 애니메이션 음악은 향후 J-POP의 견인차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3. 『시사점』

- 일본의 애니메이션업계는 안정된 시장을 유지하고자 그동안 애니메이션 관련 업체들이 코어유저 대상의 애니메이션을 다수 제작, 일반 애니메이션 팬들의 외면을 당했었음
- '05년도 신작 발표작품이 250편을 넘는 수준까지 기록하였으나, 불경기로 인해 200편으로의 작품 수 축소 및 신작의 히트부족 등이 겹쳐 전반적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부진이 계속되어 왔음
- 하지만, 다양한 소재 발굴과 소량의 완성도 높은 작품을 추구함에 따라 소위 양질의 애니메이션이 등장, 다양한 팬들을 확보하면서 새롭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
-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애니메이션송도 더불어 인기를 모으면서, 지금까지 '오타쿠'의 산물로만 여겨졌던 애니메이션송이 높은 음악수준과 가창력, 비주얼 등으로 일반 대중에게도 그 음악성을 인정, 오히려 음악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그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음
- 결국 '애니메이션산업'과 '음악 산업'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협력모델(Collaboration)의 사례로 볼 수 있어, 우리나라 관련업계에서의 많은 관심과 참조가 필요하다고 봄